

총학선거, 출마자 없어 무산

중앙단위·6개 단과대 줄줄이 미등록 불교대, 이과대 등 4개 단과대만이 선거 실시

제37대 총학생회선거가 후보자 등록 결과 입후보자가 없어 내년 3월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총학선거는 지금까지 투표율로 무산된 적은 있었지만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올해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 3월 선거전까지는 총대의원회 의장 또는 단과대 회장 중 한명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한 △불교대 △이과대 △정산

대 △경영대 △사범대를 제외한 6개 단과대와 △제37대 총대의원회 △19대 총여학생회 △17대 졸업준비위원회 역시 후보자미등록으로 무산됐다.

이에 총대의원회를 제외한 다른 단위는 시행세칙에 따라 다음해 3월 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원진(정통4) 중선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선거제칙에 후보자가 미등록되면 등록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등록기간을 연장할 경우 총대의원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6개 단과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아 선거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중선위는 앞으로 단과대 시행세칙을 총대에서 관리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가 치러지는 단과대의 후보자와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불교대=김승태(불교2)·김인영(불교3) 조 △이과대=정현주(통계2)·이승민(수학2) 조 △정산대=

박해영(컴공3)·박선혜(컴공3) 조가 출마했으며 9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경영대=임형준(경영3)·박소혜(정보3) 조가 출마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범대는 이번주 중으로 후보자가 등록할 경우 오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관련 인터뷰 4면(특집)

이밖에 총대의원회 선거는 오는 3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동아리 연합회 선거는 이달말 전체동아리 회의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중선위는 지난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학생회비 환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여부' 논의한 결과 미남부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서울시와 시정발전 협력체제 조인

서울 8개 대학과 산·학·연·정 협력 활성화 될 듯

우리학교를 비롯한 서울 중남부 지역 8개대학과 서울시가 시정발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조인함으로써 앞으로 서울 소재 대학들의 산·학·연·정 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협정 조인식은 우리학교 홍기삼 총장과 이명박 서울시장, 백용호 서울시장 개발연구원장, △건국대 △단국대 △서울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 우리학교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조인식에서 각 기관은 서울시 시장 개발 및 지역 혁신 분야 파트너십 체결,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인력 교류, 지역 산업체에 대한 공동지원등의 내용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수립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전국균화 정책에 따라 지방 대학에 정부 지원금이 적극 투자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 소재 대학들도 나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제안됐다.



협정조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기삼 총장.

이러한 조인식은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성장 동력인 산·학·연·정 협력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서울 중·남부 지역 8개대학이 지역 혁신역량강화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다.

중·남부 지역 8개 대학은 올해 초 대학내에 산학협력 전담 기구인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였고 정부, 기업체와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 행사를 공동기획한 백수현 산학협력단장(전기공학)은 "정부의 행정력과 기업의 생산력,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력을 결합하기 위한 각 주체간의 협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장 개발연구원, 중·남부 지역 8개 대학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gupress@dongguk.edu

패스제 성적표 제출 12월까지

통과 못한 졸업예비생 구제위해 연장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영·독일학)은 현재까지 '외국어 패스제'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졸업예비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는 12월 안으로 제출하는 점수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 16일 실시한 패스제 토익 시험 결과 49명의 학생이 통과해 졸업예정자 595명 중 221명의 학생이 아직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오는 12월까지 언어연구교육원으로 토익·토플·토픽 성적표를 제출하면 졸업

이 가능하다.

외부시험의 경우 시험 후 성적표 발행까지 약 한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11월 안으로 시험을 치러야 인정된다.

그러나 학내 시험의 경우 성적표 발행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2월에 치르는 시험까지 가능하다.

이번 달은 오는 20일 패스제 토익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며 8일부터 19일까지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에서 점수 받는다. 응시료는 5천 원이다.



파스텔 톤의 가을 ...

을 같이 입었다. 헤화관 옆 쉼터.

'동학의 가을은 깊어간다. 여름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는 어느덧 화려한 파스텔 톤으로 옷 정겨운 사진부 객원기자 tal@dongguk.edu

축구부, 전국체전 은메달 획득

서울시 대표 출전해 울산대에 석패

우리학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서울시 대표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학교는 지난달 14일 울산대와 결승전에서 만나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아쉽게 져서 준우승에 그친 것이다.

경기는 각 지역 대표 16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단국대(1대0)와의 경기에서 배상준(체교2)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골을 넣어 1대0으로 승리

했으며, △배제대(1대0)와의 경기에서는 김명체(체교1)선수가 프리킥으로 골문을 흔들었다. 이어 △호남대(1대0)와의 경기에서 박병권(체교4)선수가 하프라인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35M 중거리 슛으로 결승전에 올랐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축구부 김상화코치는 "내년에는 대회 우승이 목표"라며 "건학 1백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 위상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연극제 폐막 대진여고 대상 수상

'개교 98주년 2004 동국 청소년 연극제'가 지난달 16일 막을 내렸다.

전국 30여개 고등학교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진여고의 '투명비닐의 꿈'이 단체상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단체상 △최우수작품상=광주동신여고 '옛날옛적에 휘어지 휘어' △우수작품상=세원고 '영원한 사랑, 춘향이', 선린인터넷고 '동그라미 이야기' △장려상=살레시오여고 '유리동물원', 효성고 '사랑을 주세요', 용인고 '쇼다운(show-down)'이 받았다.

개인상은 △최우수연기상=광주동신여고 임지선, 송곡여고 이현경 △우수연기상=살레시오여고 정현애, 효성고 김보람, 양곡고 변영진 △장려상=용인고 이두철, 대원고 김법국, 세원고 오재세, 대진여고 이자연, 송곡여고 이아름이 수상했다.

제42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70만원, 가작 1명 50만원
4.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5. 제출: 10월 25일(월)~11월 12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6. 시상발표: 2004년 11월 22일자 동대신문
7. 문의: 02) 2260-3491~2

제19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시부문 3면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4.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5. 제출: 10월 25일(월)~11월 12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6. 시상발표: 2004년 11월 22일자 동대신문
7. 문의: 02) 2260-3491~2

동대신문사

발전기금 060-700-0119

차 없는 캠퍼스를 걷고 싶으세요?

매일 동악 곳곳에 주차된 많은 차들이 바빠 움직이는 동악인의 발길을 막습니다. 혹시 지하주차장에 여유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조금 귀찮다고 바쁜 후배·학생의 발걸음을 잡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배려가 동국인의 발걸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동대신문사

다음 학기부터 수강신청 일정 2달씩 늦춰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는 문제 해소 위해

수강과목 사전조사해 강좌수 등 조정할 듯

교무처(처장=김무봉·국어국문학) 학사지원실이 다음 학기부터 수강신청 일정을 각각 1학기는 8월, 2학기는 2월로 변경했다.

따라서 이번 200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은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 수강신청 시기가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신중히 하기 어렵고, 학과가 결정되지 않거나 특정 과목을 재수강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사지원실은 이번 변경을 통해 수강 신청 학생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학생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한병주(사회4)양은 “그동안 학기 중에 수강신청을 진행해 불가피하게 수업을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방학 중에 실시하면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학사지원실은 이번 변경 후 강좌 수나 강사 선정 등을 조절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과목 사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미리 신청할 수강 과목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와 수강신청 책자 등은 기존처럼 12월 중에 학생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실시할 예정인 수강신청 사전조사 역시 학생들이 많은 참여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월 중에 수강신청을 실시하는 타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해 형식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학생들의 수강과목 신청 결과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연세대와 중앙대, 숭실대 등 대다수의 대학들은 2월 중 수강신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려대의 경우는 11월을 전제 수강신청 기간으로 하고 2월에 학과가 정해진 학부생들이나 복학생들을 위한 추가

수강신청 기간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성균관대에서는 2001학년도부터 1월 중 1, 2학기 수강신청을 일괄적으로 실시한 후 연중으로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강과목을 선택,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간 학생들의 신청 상황에 따라 다음 학기 강좌를 확충하거나 교수를 초빙하기도 해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김태형 직원은 “변경 후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청시기와 방법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수강신청 일정은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김지는 기자 bob83@dongguk.edu

생협, 일부 임대매장 직영 결정

다서관 문구점·상록원 스넥코너 전환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다음해부터 일부 임대매장을 직영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직영운영으로 전환되는 매장은 △다서관 문구점 △상록원 스넥코너이며 계약 만료일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임대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4차 생협 이사회를 통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김용문 팀장은 “이번 전환은 생협이 자체 수익사업을 늘려 부족한 학생식당 등 학내 복지환경을 개선에 힘쓰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화관 그림 △로즈버드 △사진관 등 임대매장은 현재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 이사회에서 △대

학원 이사 교체 승인 △상임이사 선출 인준 취소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한편 생협은 식당의 위생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논의되는 내용은 △주방 및 세정 실내 바닥공사 △산 소독기, 위생발판 등 위생기구 구입 △식당 전체 벽면도색 작업 등이 있다.

또한 식단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현재 △교수=1명 △직원=1명 △대학원생 및 조교=3명 △학부생=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학기 새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이재욱 팀장은 “생협에 애정어린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회전무대

버릇없는 공사

○...동대입구역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수고로움을 1년 넘게 감수하고 있는 본교 학생들의 원성이 날로 커진다는데.

알아보니,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알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이 지하철역 공사 지연으로 불편함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는 만큼 공사지연에 대한 알림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안내판도 없는 지하철 연장 공사, 자비로 용서하라(!?)”

편학 주의보

○...이번 동연제에선 이유있는 정전이 일어날 뻔 했다는데.

소음 등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동연제 무대 지원을 중단하고 학관 부근의 전류를 차단한 것이라고.

이에 동연제를 준비하는 동아리들은 외부에서 전류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대학 다니는 즐거움, 오직 도서관에서만 찾으라(!?)”

신뢰 부도 축제

○...몇몇 단과대 축제는 학생들의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지난달 말로 잡혀있던 단과대 축제가 준비부족으로 연기되는가 하면 계획되었던 축제가 준비원회 부재로 무산된 것이라고.

단과대 축제는 구성원들과의 약속인만큼 대표들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축제 기간, 우리는 체계적인 축제에 목마르다(!?)”

담배꽂초 테러

○...지난주 도서관에서 화장실 휴지통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알아보니 누군가가 금연장소인 도서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 꽂초를 잘못버려 휴지통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외에도 실내 금연장소가 빈번하게 휴연장소로 이용돼 비흡연자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니 공공장소에서 만큼은 서로간의 예의를 지켜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요즘 날씨가 쌀쌀하시죠. 그럴때 휴연화장실을 찾아주세요(!?)”



2004 가을학기 창의적 공학설계 나무다리 경연대회'가 지난달 30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공과대 △정보산업대에서 주최한 것이며, 나무 짓기작으로 만든 다리에 10kg이상의 추를 달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신입생 대상 사전교육프로그램 마련

200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2005학년도 사전교육프로그램은 교양특별강좌와 정규교양과목으로 구성됐다.

교양특별강좌는 ‘중국 새내기 교양 세미나’로 진행되는데, 대학 입학 전 시간적 공백 활용방법을 알

려주고,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사항을 배울 수 있다.

정규교양과목은 입학 후 수강 가능한 교과목 중 일부를 사전에 수강할 수 있는 기회이며,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을 위해 일부 강좌를 개설한다. 한편 특별전형 합격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원총 기획강좌 실시 내일까지 신청가능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어국문학 석사과정)에서 내일(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기획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라는 주제아래 △1강=벤야민의 매체이론 I -아우라 개념을 중심으로 △2강=벤야민의 매체 이론 II -“사진의 작은 역사” △3강=벤야민 비평의 이중성-브레히트와 카프카의 교차로에서 △4강=“독일 비극의 원천”에 나타난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글쓰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명사초청법회 2일 이시기가미 젠노 박사 초청

명사초청법회가 내일(2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열린다. 초청 명사는 일본 대정대 명예교수이자 속덕대 총장인 이시기가미 젠노 박사이며 “불교와 지옥의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교직원·학생·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오늘(1일) 홍기삼 총장은 총장실에서 이시기가미 젠노 박사에게 본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규정 제·개정 및 폐지 고시지원 직책 신설 등

지난 19일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 확정됐다.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계산고시학사의 간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고시지도원 직책이 신설됐다.

또한 대학원 ‘임학과’가 ‘산림자원학과’로 명칭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관련 학과 대학원 학위수여명도 개정됐다. 그리고 사무분장 규정 개정에도 따라 총무팀 청소용역 관리업무가 시설관리팀 업무로 이관됐다.

한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총장에서 기획인사처장으로, 기획위원회 위원도 각 처장 당연직 위원에서 일부 처장 당연직 위원, 전임교원, 직원으로 구성이 바뀐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획위원회 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도서관 사서 테니스대회 김종철·노장오 팀 3위

‘제7회 전국도서관 사서테니스대회’에서 본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김종철 팀장과 노장오 과장이 복식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23일 대전 침례신학대에서 열렸으며 집현전부 8개팀과 규장각부 9개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중국인 커리어 파워 업 프로그램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진행된 프로그램은 '21C 마케팅 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조서환 박사가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계절학기 수강신청 실시

내일부터 3일간 6학점 이내 신청 가능해

200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내일(2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수강신청은 수강 신청 프로그램 설치 후 교내 PC시설이나 외부에서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다. 단 9학기 이상 재학생은 소속 대학 교과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4학년도 2학기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되며 신청학점은 6학점 이내이다.

2004학년도 1학기, 2학기 개설 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 개설요건 충족 교과목이 개설되며 강좌 개설 기준인원은 10명이 상이다. 계절학기 수업은 12월 13일부터 1월 7일까지 주 4일 수업으로 16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개설 교과목 1학점 당 75,000원이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기간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이며 수업료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이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기간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이며 수업료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이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1)	돈갈비김치찌개 (2000) 소고기볶음밥 (1800) 치킨샐러드 (2000)	참치찌개 (1800) 삼선짜개 (1800) 불고기 (2000)	된장찌개 (3200) 부대찌개 (3500) 닭갈비 (3500)
화 (11/2)	사골곰탕 (1800) 안동찜닭 (2000) 갈비경단백반 (1800)	설렁탕 (1800) 누지제육볶음 (2200) 떡볶이백반 (1800)	된장찌개 (3200) 떡볶이불고기 (3800) 이면수국이 (3500)
수 (11/3)	떡만두국 (1800) 오징어김치볶음 (2000) 불고기비빔밥 (2000)	닭개장 (1800) 간짜육 (2000) 비빔밥 (1800)	된장찌개 (3200) 순만두국 (3500) 두부김치 (3500)
목 (11/4)	육개장 (1800) 하이리이스 (1800) 라조육 (2000)	우거지갈비탕 (2000) 오징어김치볶음밥 (1800) 찌개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비프커피렛 (5000) 고등어우조림 (3500)
금 (11/5)	햄숙어찌개 (1800) 꾸꾸미제육볶음 (2000) 카레볶음밥 (1800)	김치수제비 (1600) 지장밥+찜빵국 (2000) 제육볶음 (2000)	된장찌개 (3200) 해물찌개 (3800) 더덕구이 (3800)

금주의 추천메뉴

치킨샐러드 (동국관 월요일 석식)

바삭하게 튀겨낸 닭살에 아삭거리는 양상추, 양배추, 오이 등 여러 채소와 머스타드 소스를 곁들였다.

신선한 야채는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동악게시판

제9회 토목환경 전시회
원흥관 6층 토목환경 설계 세미나실
11월 11일, 12일

산림자원학과 옥립의 날 행사
11월 3일 오전 9시
정각원 앞, 연습림으로 출발

4th Masic concert
11월 4일 오후 6시 중강당

동국대 R.M.E 회원 모집
11월 2일, 동국관 3층 로비
문의: 016-9224-8209

2004년 하반기 임시 대의원 총회
11월 3일 6시 학림관 J401

2004년 추계 학술대회
12월 3일, 한국 과학 기술회관

오빠추어 코리아
2차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기간은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응모방법은 thinksearch.co.kr 참조

신민방송학과 제9회 학술제
11월 3~5일
세미나, 초청강연, 소모임의 날 행사
산방인의 밤

경제학과 제13회 경제인의 밤
11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상록원 교수식당

2학기 코끼리배 테니스 대회
문의: 011-9784-6462
DUTC 회장 류창규

취업

(주)보라티알
모집부서: 영업관리직
응시자격: 전공불문, 상경계열우대
문의: 02)405-1311
모집기간: 11월 3일까지

DKIMS
모집부서: 신입
응시자격: 전공불문
문의: 02)546-6789
모집기간: 11월 13일까지

KR선물(주)
모집부서: 신입
응시자격: 전공불문
문의: 02)546-6789
모집기간: 11월 13일까지

모집부서: 파생금융상품 관련
응시자격: 전공불문
채용부서: 정규직, [남,녀] 0명
모집기간: 11월 5일까지

아르바이트

교보리얼코
보수: 80만원
하는 일: 서울시내 빌딩조사 및 자료입력
모집기간: 11월 26일
문의: 컨설팅팀 허준호
011-9701-7814

대성학원 동작분원
하는 일: 국어강사
파트타임: 70만원부터
전일강사: 100만원부터
모집기간: 11월 6일
문의: 02)822-6589

시노베이트
하는 일: 주류 관련 좌담회
일자: 11월 2일 16시
또는 11월 5일 16시
시간: 2시간
보수: 2만5천원
모집기간: 11월 4일

이주의보고역사

1986년 11월 학생민중주간 행사

지난 1986년 11월 3일 오후 2시 '제57회 학생의 날 기념식과 제헌의회 소집투쟁실천대회가 4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불상앞에서 열렸다. 총학 사회부장 이인순(철학4) 양의 건대 사건에 대한 경위보고로 시작된 행사에서 총학생회장권한대행 이준호(산공4)군은 기념성명서를 통해 "1929년 광주학생의거로 시발된 학생운동은 이제 반독재 반외세 민주화투쟁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민주주의 민중 공화국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총진군하자"고 밝혔다. 또한 11월 4일부터 8일까지를 '학생민중주간'으로 정해 '민중해방 투쟁으로서 동국학생투쟁의 실천적인 교양시기로 삼자'고 그 원칙을 설명하고 각종 심포지엄과 자료집배부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9년 총학선거 2개조 입후보

제23대 총학생회 정·부 회장 선거에 기호 1번 조시형(인철3)·최일웅(회계3)조와 기호2번 정우식(철학3)·신원섭(경제3)조가, 제7대 총여학생회장에는 최윤희(인철3)양이 각각 입후보했다. 후보자 등록 후 중선위원장 안성준(국문4)을 비롯한 입후보자, 선대본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시행 세칙검토와 사진촬영등이 있었다. 한편 선거의 전반기 규정하는 선거시행세칙은 네 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있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선전물 부착, 유인물배포, 선대본운영 등에 대한 세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 후보자 인터뷰

“풍부한 경험으로 힘있는 총학생회 만들 것”

“커뮤니티 활성화로 원생들 결집 끌어낼 것”



김성철(북한학과 석사2학기) 정재민(미술사학과 석사2학기)



김경식(연극영화학과 석사2학기) 유지선(연극영화학과 석사2학기)

- 이번 21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게 된 계기는...
= 김경식·유지선(이하 김, 유) 본교 대학원의 연구환경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문제 △학술지원 강화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공간 확보라고 생각하고 이와 함께 대학원 내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과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 공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김, 정) 우선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복지분야, 학술분야, 등록금 분야이다.

- 연구공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김, 정) 장기 추진 사업중에 연구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1년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공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김, 정) 우선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복지분야, 학술분야, 등록금 분야이다.

- 연구공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김, 유) 연구공간 확충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도 거의 열렬실처럼 쓰이고 있는 대학원 휴게실을 정식으로 열람실화 하고 대신 학술관과 문화관 육상을 휴게실로 만드는 녹화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 공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김, 정) 우선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복지분야, 학술분야, 등록금 분야이다.

- 연구공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김, 유) 연구공간 확충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도 거의 열렬실처럼 쓰이고 있는 대학원 휴게실을 정식으로 열람실화 하고 대신 학술관과 문화관 육상을 휴게실로 만드는 녹화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 공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김, 유) 공약사항을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기초연구환경의 안정화 △문화복지 향상 △학생 서비스 개선 △장학 및 등록금

- 연구공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김, 유) 연구공간 확충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도 거의 열렬실처럼 쓰이고 있는 대학원 휴게실을 정식으로 열람실화 하고 대신 학술관과 문화관 육상을 휴게실로 만드는 녹화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 공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김, 유) 공약사항을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기초연구환경의 안정화 △문화복지 향상 △학생 서비스 개선 △장학 및 등록금

- 연구공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김, 유) 연구공간 확충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도 거의 열렬실처럼 쓰이고 있는 대학원 휴게실을 정식으로 열람실화 하고 대신 학술관과 문화관 육상을 휴게실로 만드는 녹화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단과대 선거 입후보자 인터뷰

“연대강화로 정체성 확립 노력”

- 구호 '동약의 중심에서 다시 시작하는 만해의 기상'의 의미는...
= 내년에는 불교대가 구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된다. 예전 명진관에 위치했던 불교대가 문화관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팔정도 근처로 옮겨 오는 것이다.



김승태(불교2) · 김인영(불교3)

- 공약 대부분이 연대 강화에 중점을 뒀는데 이유는...
= 불교대의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교대 학생들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대가 학부제 체제에서 선후배간 연계도 어려워 학생들이 학부에 애정을 갖지 못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엔터, 동문회의 밤,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 공간이전에 따른 학생회 향후 계획은...
= 공간문제는 내년 불교대에서 가장 크게 문제될 이슈다. 특히 공간활용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들의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중재하는 것이 학생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 위한 공간확보에 주력”

- 이번 선거 모토인 'What you really want'가 의미하는 바는...
= 많은 학생들이 처음 이 선거구호를 보면 의아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what 다음에 'do'가 빠졌기 때문이다.



정현주(통계2) · 이순혁(수학2)

- 이과대 학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이과대는 비교적 학과별로는 단과대 이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생들을 더욱 통합시키기 위해 각 학과별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당신이 된다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은...
=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학생들이 사용할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명진관에는 여성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학업을 위한 공간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공간이전에 따른 학생회 향후 계획은...
= 공간문제는 내년 불교대에서 가장 크게 문제될 이슈다.

- 당신이 된다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은...
=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학생들이 사용할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공약을 ‘실천’ 하는 학생회로”



임형준(경영3, 오른쪽) · 박소혜(정보관리3)

- 출마동기는...
= 올해 경영대가 비대위 체제로 지속되면서 학생회 운영에 많은 부족함을 느꼈다. 또한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 번 공동체를 세우자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다.

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학생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실시해 피드백이 가능한 학생회를 만들 것이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경영대 학생들이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학과 특성상 팀 과제가 많은데 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 학생회 민주주의 강화 공약의 의미와 실천방안은...
= 현재 학생회와 단과대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항상 변화하는 학생회 건설”



박혜연(컴공3) · 박소혜(컴공3)

- 정산대 정·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이유는...
= 그동안 학생회의 사업을 바라보며 변화돼 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 정산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선거 시기에만 학생들을 만나기

보다는 학기 중에도 강의실 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특히 정산대 건물 앞에 '포커뮤니티 존'이라는 이름의 게시판을 설치하고 스티커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재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 현재 정산대와 공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학기초소양과목(BSM) 제도는 전체 학생들이 일정한 과목과 할당된 시간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 정산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선거 시기에만 학생들을 만나기

- 현재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 현재 정산대와 공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학기초소양과목(BSM) 제도는 전체 학생들이 일정한 과목과 할당된 시간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총장장학 수혜대상자 공지

2004학년도 제2학기 총장장학 수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Table with columns: no, 소 속, 성명, 학년, 장학명, 비고. Lists scholarship recipient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etc.

Table with columns: no, 소 속, 성명, 학년, 장학명, 비고. Lists scholarship recipients for departments like Law, Engineering, etc.

Table with columns: no, 소 속, 성명, 학년, 장학명, 비고. Lists scholarship recipients for departments like Computer Science, Health Sciences, etc.



2001년 4월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오랜 동맹인 쿠바를 다시 방문했을 때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무위원회 주석에게 다음과 같은 4구의 칠언 절구(絶句)를 건네주었다.

아침에 꽃구름 가득한 중국을 떠나 (朝辭華夏彩雲間) 열흘 만에 만리 길 남미에 당도했네 (萬里南美十日還) 강 건너 비바람은 미친 듯이 거센데 (隔岸風聲狂帶雨) 푸른소나무 강직하니 산처럼 의연하다 (青松傲骨定如山)

이 시에서 장쩌민은 당시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미·중간의 갈등 관계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함께 미국의 코앞에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쿠바를 칭송을 유하였다. 사실 이 시는 "아침에 꽃구름 가득한 백제성을 떠나(朝辭白帝彩雲間), 천리 길 강릉에 하루만에 이르렀네(千里

江陵一日還), 삼협 양쪽 강언덕엔 원숭이 울음 그치지 않는데(兩岸猿聲啼不住), 가벼운 배는 이미 만산을 벗어났다(輕舟已過萬重山)"고 읊은 이백(李白)의 시 '조발 백제성(早發白帝城)'의 운(韻)을 그대로 살리고 자구를 일부 바꾸어 환골탈태(換骨奪胎)시킨 것이다.

여기서 보듯 시를 통한 정치적 의사 전달 방식은 고대 중국 제후국 간에 행해져 온 외교 관례였고, 장쩌민은 이를 멋지게 활용한 것이다. 중국 사상의 태두인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소통하기 어렵다"라고까지 하며 시의 중요성을 실파했는데, 이러한 관념은 당(唐) 나라 때 최고 등급의 과거인 진사과(進士科)에서 시 짓는 능력을 중시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서구 사상의 아버지 플라톤이 시인 추방론을 주장한 것을 생각할 때 동·서 문화의 현격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전파, 수용, 토착화의 과정을 거치며

노래 부르고 불려지고 읊조려지는 가운데 문인 사대부 사회의 중심적 소통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시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것은 "시에서 흥취를 느끼고(興於詩), 예에서 설 자리를 찾고(立於禮), 음악으로 인격적 삶이 완성된다(成於樂)"고 한 공자의 시교(詩教) 이데올로기의 전 인격적 구현에 힘입은 것이다.

중국 고전시의 양대 산맥은 당시(唐詩)와 송시(宋詩)이다. 송시가 성리학의 영향으로 이지적 색채를 띠고 있다면, 당시에는 경치와 감성이 잘 융화된 서정시가 많다. 특히 중국시의 최고봉을 이루는 당시는 5언 또는 7언의 8구로 정제된 형식과 음률로 낭송의 즐거움과 함께, 한편의 그림을 보는듯한 함축적 서정성이 깊이 녹아 있어 정제된 응축미를 느끼게 해준다. '전당시(全唐詩)'에는 2천여명 시인의 5만수의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청나라 손수(孫洙 : 형당퇴사 蘅塘退士)는 이중 77인의 시 300수를 뽑아 '당시삼백수(唐詩

三百首)'를 만들었다. 이 책은 민간의 노래를 모방한 자유로운 형식의 악부시(樂府詩), 형식이 비교적 단순한 고체시(古體詩), 그리고 중국음의 격률미를 잘 살린 8구의 율시(律詩) 및 4구의 절구(絶句)가 각각 오언시와 칠언시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당대의 시인 중 사실주의적 색채가 강한 시성(詩聖) 두보(杜甫), 호방한 낭만주의 시인인 시선(詩仙) 이백(李白),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중에 시가 있다(詩中有畫, 畫中有詩)"는 평을 듣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왕유(王維), 그리고 탐미적 상징시를 지은 이상은(李商隱) 등 4인의 작품이 전체의 1/5을 차지하며 주옥같은 명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이 책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며, 사화 고발성이 강한 작품은 배제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은 이제는 여성 인력을 단순히 배려하는 인사 정책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발탁 활용하

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창의성과 섬세한 감성 등 21세기가 요구하는 기업인의 자질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사실 중국을 휩쓸고 있는 한국의 게임 산업, 스피드버그의 여러 영화들, 해리포터, 그리고 한류(韓流)를 이끌고 있는 겨울연가 등의 고부가가치는 모두 단순한 기계적 매커니즘이 아니라, 그들이 어릴 적부터 키워낸 인간 감성과 풍부한 상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문학 고전(古典)의 현재적 재창출은 우리들의 마음의 온도계를 훈훈히 올려주고 그로부터 다시금 우리의 현재로 되먹여주는(Feedback), 이른바 옛 것을 익혀 오늘의 새로운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 있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적 감성이 풍부한 '당시삼백수'는 그 적절한 도경(途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오 태 석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당시삼백수 중국 당나라 명시수록 의미있는 온고지신



■ 삼국유사 우리의 역사이자 문학작품 상상과 창의력 계발에 도움

데 특히 문헌중심의 역사 쓰기를 고집하지 않고 구비역사도 문헌 못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 민중간의 전승담마저 적극 사서에 편입시켰다. 이같은 특성은 서두의 목차 두 번째에 기이편을 설정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괴력난신적인 이야기라면 일부러 외면한 삼국사기의 기술 태도를 냉소하듯 그는 신이사관을 앞세워 이적과 영이합 중심으로 이야기를 수습함으로써 유교적 합리주의나 현실적 안목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활달하게 만들었다. 물론 유교적 사서체식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중국역사들이 상고시대를 신화로 화려하게 덧칠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그 같은 신화적 요소가 있음을 강변함으로써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에 역공을 가했다. 결국 신이사관을 전면내 내세우면서 삼국유사는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와 관련된 역사의 경계가 흐려지고 마침내 역사하면서 동시에 문학이라는 복합적 글쓰기의 범례로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사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일연의 역량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유사에 유난히 서사성이 강하다는 말은 한편으로 그 소재 이야기가 전승담의 온전한 채록은 아닐 것이라는 유추를 낳게 하는데 원형 설화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야기를 매만져 한층 감칠맛 나는 담론으로 변주한 일연의 문재를 놓치지 말 일이다. 전체적으로 유사소재 각 편들은 거기에 불교사상을 짚게 깔고 있으나 생경한 경전적 주입에 머물지 않고 사부대중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고민한 끝에 나온 이야기라고 해도 좋다. 일연은 민중에게는 가이없는 측은함을 보이는 대신 권세자의 오만함에 대해서는 비판과 함께 냉소를 보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불교적 종지와 철리의 제시와 함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친진하고 의실스러운 미소를 머금게 하는 특징은 노경의 일연이 도달한 달관과 초탈의 경지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삼국유사는 상상과 환상의 세계를 유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거둔 필독을 권하는 큰 이유이다. 일연은 일상적 시공간을 감감해하는 듯 시간과 공간의 광범한 일탈을 빈번히 감행하여 생을 말하되 현생보다는 전생과 후생에 더 관심을 보이는 편이며 결핍하면 천상, 용궁, 지하 세계 등을 서사적 공간으로 택하고 이에 불보살, 신중, 나찰, 나한, 승려, 범부 등 신격과 인간을 버무려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전 속의 불교적 시공간을 역사적 사실과 섞어 이처럼 풍성한 상상적 담론으로 엮어낸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다. 상상과 창의력의 개발이란 기저를 높게 내걸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왜 삼국유사를 필독할 정점으로 꼽아야 하는지 까닭은 더욱 자명해진다.

시대와 문화를 증언하는 역사를 넘어 선적 기운마저 감도는 삼국유사, 불교 역사 문화의 인식적 지평을 한데 넓혀주는 데 이만한 책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그 해독의 즐거움에 편승해보는 가을이 되었으면 한다. 김승호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고전원칙이 푸른 숲

고전(古典)은 시대를 초월해 오랜 세월이 걸쳐 널리 애독되는 걸작을 일컫는다. 이런 고전은 일시적으로 이목을 끄는 작품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아 본고에서도 지난 2003학년도부터 고전관련 강좌를 대학이 개설하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 각 분야별 교수들에게 고전작품을 추천 받아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 글 쓰는 순서

- 1. 문학 우리나라 서양 중국
2. 인문과학
3. 사회과학
4. 자연과학



■ 젊은 예술가의 초상 값진 삶의 길 제시 홀로 서는 힘 기르길

나는 멀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20세기 초기에서 값진 삶의 길을 알려주는 '고전'을 찾고자 한다.

제임스 조이스는 조국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시기에 괴로웠던 성장 과정을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승화시켜 예술화했다. 이 고전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정황에서 울음을 삶을 홀로 일구려내고 애쓰는 한 젊은이를 가슴 뜨겁게 만나게 해준다.

서두 부분은 주인공 스티븐 데달로스가 유아기부터 예수회 기숙학교에 다니던 시기를 다룬다. 덩치 큰 학생이 작은 체구의 스티븐이 가진 담배 갑을 자기의 마로니에 열매와 바꾸자고 조르다 거절당하자 그를 번소 통에다 밀어 넣는다. 그 때문에 병이 나서 학교 양호실에 누워 있던 일, 부당하게 벌을 준 선생에게 항의하러 교장실을 찾아가는 일 등에서 그의 내향적 인 성격, 예민한 감수성, 권위에의 반항정신이 잘 드러난다.

중학교에 다닐 때 가세가 점점 기울어 열 번 이상 이사를 다니면서 그는 삶의 아픔을 철없는 형제들 사이에서 참예하게 느낀다. 스티븐은 '몬테 크리스토

백작' 같은 로맨틱한 문학작품에 열중하고 이상적인 여주인공을 사모하나, 남은 재산을 경매에 부치려고 으르렁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아버지에게 대한 쓰라린 환멸을 체험한다. 예수회 학교 교장이 공부 잘하는 그에게 사제가 되길 은근히 종용하자 이 문제로 심한 갈등을 느끼던 중 자신의 성 데달로스가 곧 그리스 전설의 장인의 것이며 그의 이름 스티븐은 신앙을 고수하다 순교 당한 성자 스테판의 것임을 깨달으면서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놀릴 때 스티븐은 자신의 '장인적' 운명을 자각하며 우울감을 느낀다. 스티븐은 예수회 대학에 다닐 때 미학에 대해 교수와 급우들과 논쟁을 벌이며 자신만의 예술관과 인생관을 형성해 나간다. 급우들이 그에게 세계 평화를 빙자한 선언서에 날인을 강요할 때도 그는 그들의 '허위성'에 반항하며 거부한다.

그의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홀로 선다는 고독감을 주지만 그는 수백 년에 걸쳐 아일랜드의 독립을 막은 것은 아일랜드 사람들 자신임을 역설한다. 그는 가족과 조국과 교회를 등지고 스스로 '유배'의 길을 떠난다. 그는 마지막 일기에서 "오라, 오 삶이여! 나는 백만 번이라도 경험의 실재와 대결하겠노라. 그리고 내 종족의 아직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내 영혼의 대장간에서 버려졌노라"고 비장하게 다짐한다. 그의 자발적 유배를 말하려는 친구에게 그는 "너는 나에게 국가, 언어, 종교를 강조하는데, 난 그러한 그들을 비껴 날아가겠다"고 냉담하게 대꾸한다.

그러나 아이리니컬하게도 여러 평자들이 지적하듯이 조이스의 예술은 가톨릭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는 마음 속 깊이 아일랜드를 사랑하여 평생 조국에 대해 서만 글을 썼던 것이다. 스티븐, 즉 조이스가 가족과 교회와 조국을 등진 것은 이들의 집착할 것 같은 그를 벗어나 아일랜드를 직시하는 '해안'을 얻기 위함이었다. 모든 작품에서 아일랜드만을 주제로 삼은 조이스는 "내가 더블린의 핵심을 포착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대도시의 핵심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린에 관해서만 쓴다"고 특수성 속에 보편성이 내재함을 역설했다.

오늘날 홀로 서기를 무서워하고 현실과 쉽게 타협하고 패거리를 지어 큰 목소리를 내는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이러한 고전 읽기를 통해 '스스로 홀로 설 힘'을 기르기를 바란다. 김정매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13th English Essay Contest
생각에 힘이 있는 당신!
11월 5일, '꿈'과 함께 달리자
누구? 생각에 힘이 있는 동국인 모두
언제? 2004년 11월 5일 오후 6시 30분
어디서? 명진관 A104
상품은?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
상금은? 1등 2등 3등 장학금 차등 지급, 4등 TIME 6개월 구독권
참가 신청은? 11월 5일 오후 5시까지 V동 본사 편집국
그게 맞고는? 한영/영한사전 지참가능.
문의 02) 2260-3493 / dgpost.dongguk.ac.kr / kaedoly@dongguk.edu
주최 Qjr Dongguk Post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 협찬 TIME(주) UPA TIME KOREA

제3회 동국청우수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셨던 故 청우 최재구 선생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제3회 동국청우수상' 수상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받습니다.
1. 추천대상 : 동국인(동문, 교수, 직원, 학생)
2. 구비서류
1) 추천서(A4용지, 형식자유, 공적사항 明記) 1부
2) 피추천인 이력서 및 사진 1부
3) 공적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1부
3. 접수마감 : 2004년 11월 25일까지
4. 시 상 : 상패 및 부상(순금 30돈)
5. 시상일 : 2004년 12월 16일(목) 오후 6시 30분 양배서터 호텔2층 (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행사장)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홍보실내
전화 016-896-3916(윤천영) / 2260-3025(신관호)
청우최재구선생추모사업회
회장 류주형

건학100주년기념 교사(校史) 자료 수집
건학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06년 명진학교 개교당시부터 현재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校史)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불전, 해학전문,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본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동국인의 긍지를 고취시켜 일류대국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함.
2. 수집 기간 : 2006년 4월 까지
3. 수집 장소 : 동국대학교 박물관
4. 교사자료 수집내용
1) 건학에 기여한 선각자 및 사물에 관한 자료(1906년 전후 자료)
가. 선각자 : 이보담, 김월해, 김우윤, 박보봉, 김석용, 홍철호, 김보은, 김포용, 김현암(9인)
나. 사 물 : ▶ 대법산 : 원흥사(서술)
▶ 중법산 : 봉은사(광주) 봉선사(양주), 용주사(수원), 마곡사(공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해운), 통도사(양산), 동화사(대곡), 월정사(강릉), 유점사(고성), 석왕사(안변), 귀주사(함흥), 보현사(영천), 신광사(해주)
2) 문헌자료
가. 서적 및 정기간행물 : 각 기관에서 발행한 서적 및 간행물
나. 문서, 문건 : 공문서, 업무일지, 회의록, 대차부, 학생활동문건 등
다. 각종 증서류 : 학위증, 학생증, 성적증명서, 교직원신분증 등
라. 기념인쇄 및 홍보물 : 대이러, 달력, 카드, 팸플렛, 포스트, 페넌트 등
3) 기념품 : 교표, 교기, 우승컵,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4) 복식자료 : 교복, 교모, 체육복, 교련복, 학군단복, 실습복, 행사티셔츠 등
5) 사진자료 :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6)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 휘호, 서예, 유품 등
7) 집기 및 비품자료 : 각종 인장, 현판 등
* 문의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02)2260-3120, 박물관 (02)2260-3462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보리소

창작발레와 불교포교

얼마 전 발레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다. 실내가 화려한 공연장이나 문화회관이 아닌, 발레공연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야외무대였다. 짙은 울퉁퉁과 열정의 광장으로 상징되는 신도시 일산의 라페스타 문화광장에서 무용극이, 더욱 놀랍게도 불교를 소재로 한 창작발레가 연출되고 있었다.

그건 분명 모험이었다. 발레공연, 그것도 불교를 소재로 한 무용극을 야외무대에 올린 자체만으로도 파격이었다. 기우였을까. 주말 광장을 찾은 수많은 젊은 남녀와 가족들이 발레무용극의 시작을 알리는 불교소리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나 둘 모여들더니 신기한 듯 자연스레 공연에 빠져들었다. 관습적 이미지를 벗어 던진 전혀 새로운 구상의 창작발레가 관객들의 통념을 깨고 있었던 것이다.

공연주제는 '원효'였다. 무애적(無碍的) 삶을 통해 대중불교를 이 땅에 처음 뿌리내린 원효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무용극으로 펼쳐 보인 무대였다. 광장으로 끌어낸 그날 공연의 시도는 원효의 무애적 삶을 웅변해주는 듯했다. 발레무용을 통해서도 알마든지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그날 공연은 그렇게 대성공이었다.

'순재현무용단'이 지난 10월 9일 무대에 올린 창작발레 '원효'를 본 일단의 소감이다. 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동국대 체교과 손재현 교수는 익히 낮은 이름이다. 수년간 고집스럽게 불교만을 소재로 한 창작발레를 통해 새로운 포교분야를 개척한 인물이기도, 불교계의 기대는 자못 컸고 손 교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불교계가 공인하는 행원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학교 밖에서 공연받고 있는 손 교수의 발레무용 포교론이 학교 안에서는 설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낮은 분야지만 자신의 전공을 불교에 회향하겠다는 순수한 열정과 노력으로 수년간 포교의 새 전형을 일궈 온 손 교수의 바람은 학교에 (불교)무용과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의 원력이 현실로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 하 춘 생 주간불교신문 편집부장

소나기

성매매는 위법행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매매는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
△지금까지 성매매가 없었던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합당하다.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공중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위법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파는 사람이 있어 산다지만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위법이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시각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성 문화에 폐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위법으로 볼 수 있다.
△위법아니다! 성매매도 엄연한 직업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지해 버리면 성매매를 직업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의 뜻은 이해하지만, 성급한 결정이 아닐지.
△필요악인 것 같다.
△국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공중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에게 혹사·착취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때는 바야흐로 중세다. 사람들은 곳곳에 '개슬'을 짓고, 거대한 교회당들은 저마다 천국 갈 면죄부를 헐값에 팔아넘기기에 바쁘다. 좋았던 과거를 되찾겠다고 나선 한 사제는 신성한 육체를 내뱉고, 21세기 현대국가의 대통령은 졸지에 '깎두기 임금'으로 명명된다. 도대체 중세는 여전히다. 누구는 농담이라고 했지만, 21세기 한국에서 중세는 농담이 아니다. 과연 지금 한국이 중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정할 수 있겠는가. 이른바 '관습법'에 따른 이런 판정은 분명 희극적인 일이지만, 오히려 이런 일련의 징후들이 우리에게 한국사회에 실재하면서도 인식되지 못하는 그 무엇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사회

대통령을 '임금'이라고 지칭한 국회의원이거나,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성 근거를 관습법에서 찾은 헌법재판관들이 한낱 우스개 소리나 할 요량은 아니었을 테다. 이들은 참으로 진지하게 사태를 봤고, 또 그토록 진지한 결정을 내렸을 거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 같은 희극적 진지성에 파리를 틀고 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거울을 애초부터 가지 못한 한국 부르주아 계급의 문제를 이런 일련의 사태가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물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



논단

이택광 문화평론가

21세기 현대판 중세시대에 '관습'이 갖는 사회적 의미

전히 중세적 징후로 넘실대고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견 상충의 문제가 아니라, 나태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처럼 근대 집단은 대개 과거의 사회에 빚어 자기네 집단의 정체성을 상상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은 상상 공동체인 것인데, 이 때는 갖은 오해와 달리 민족 자체가 허구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이 지칭하는 건 민족의 형성이 이런 허구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상징 행위'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런 까닭에 민족은 없고 민족주의는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없는 민족이 아니라 있는 민족주의

이다. 민족주의는 '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탈할 바깥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다.

민족과 민족주의 간의 관계

겉으로 보기에 민족주의는 단일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민족주의는 민족과 조우할 수 없다. 민족은 매끄럽게 환상을 직조해내는 민족주의와 달리 지리멸렬한 실재이기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범주 내에 얼마나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이질적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2260-3491·2 FAX: 2279-1270 문의·제보: dgupress@dongguk.edu

열린글터

고 김사엽(金思燁) 교수의 문화훈장 수여를 축하하며

지난 10월 20일 문화의 날에 동국대학교 교수 및 본교 일본학연구소장을 지내셨던 김사엽(1912-1992) 교수께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으셨다.

선생님은 한·일 양국을 통틀어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30여 년 동안, 30여권 이상의 한국문화와 역사, 문화관련 서적 및 일본 문학을 양국에 번역 소개하여, 두 나라의 우호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발군의 업적을 남기셨고, 일본 속의 한국문화를 찾아 일본각지를 학술 답사, 우리문화 뿌리 찾기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공로를 인정받았다.

선생님은 일찍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의 '삼국사기 상·하권'과 '삼국유사 상·하권' '한국문학사' '한국 고대사' '한국 역사와 시와 여행' '조선의 마음' 등 문학, 역사 관련 서적의 일본어 번역 및 저서를 통하여 일본에 한국을 알리는 선각자의 역할을 다하셨다.

지금도 일본인이 한국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작금의 동아시아 관계를 생각하면, 이들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선생님은 그밖에도 일본 문화에 대한 한국어 번역에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일본의 고전 중의 고전인 '만엽집(萬葉集)'을 5권으로 번역, 출간하셨다.

'만엽집'은 우리의 신라의 표기법을 배워간 것이기에, 신라 향가의 올바른 연구를 위해 한국어 번역은 필수라고 생각하신 결과물이다. 또한 '고대 조선어와 일본어' '기기만엽(記紀萬葉)의 조선어'와 같은 일본어 저술을 통해 일본어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관점 하에서 행한 한·일어 비교 연구는 괄목할만하다.

이러한 한·일 문화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훈사등육일소수장(勳四等旭日小綬章)과 오사카부(大阪府)로부터 산편반도상(山片蟬桃賞)을 받는 등 한국인의 공지를 드높였다.

이제 우리 후학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선생님의 업적에 상응할만한 아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훌륭한 학문적 업적이다. 또한 우리는 다시금 선생님의 업적뿐만 아니라 삶의 자취도 되돌아 볼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선생님이 우리 동국의 은사일 뿐 아니라, 치열했던 학문의 과정 때문일 것이다.

오석윤(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 시급

어김없이 돌아오는 중간고사가 끝났다. 몸도 마음도 평소보다 지치는 시기이지만 시험 기간 도서관의 풍경은 우릴 더 맥 빠지게 했다.

새벽에 등교하지 않으면 도서관 자리 맡기는 쉽지 않고, 이런 때면 주인 없이 책만 울러진 자리가 너무 많아 더욱 야속하다. 가끔은 자리를 찾아 도서관의 5개 층을 뱅뱅 돈 후 결국 빈 강의실을 찾곤 한다. 그런 날이면 공부도 하기 전에 기진맥진 해지기도 한다.

좋은 대학이라 평가받으며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다른 학교들의 경우 각 단과대마다 상당수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학교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도서관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공강 시간에 잠시 앉아 책을 볼 자리조차 부족할 지경이니, 더이상 무슨말을 할 것인가. 계절이 바뀌어 신입생을 맞이할 때면 교정 곳곳은 갖가지 꽃으로 화사하게 단장된다. 하지만 정작 무엇보다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인가. 이는 고민하기 전에 이미 너무 자명한 문제가 아닐까.

박현호(공과대 건축3)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새로운 지면의 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호 동대신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제기획, 논쟁 등이 추가돼 그 어느 때보다 내용적으로 풍부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제기획 면에서는 학생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흥미롭게 다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논쟁 면 역시 그동안 동대신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그런데 화제개혁 논란과 나의 주장 실명제 등 학회, 학내 사안을 고루 다뤄 준 점에서는 유익했으나 한 지면에 같은 형식의 4개의 글을 한꺼번에 실고 있어 읽는데 지루한 감이 들기도 했다.

또한 이번 신문에서는 특히 본교의 대학 특성화 사업 탈락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면서 특집 기사, 사설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서 학교 신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읽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동대신문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최대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기획과 내용들을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보라(사과대 신방4)

2004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 1. 개설대상 교과목 및 개설시간
가. 2004학년도 1학기, 2학기 개설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개설 요건 충족 교과목. 단, 실험·실습 및 사이버강좌, 학과에서 개설을 원하지 않는 전공교과목은 개설대상 교과목에서 제외.
나. 수강신청 및 등록 결과로 강좌 개설 여부를 확정합니다.
다. 직필 및 전공 교과목의 경우 1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오전에 개설예정이며,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오후에 개설예정입니다.
라. 교양 교과목은 학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오전에 개설예정이며, 학수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오후에 개설예정입니다.
마. 계절학기에 개설되었던 강좌는 홈페이지 재학생서비스「시간표 및 강의계획서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설학과 사정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수업일정
가. 운영기간: 2004. 12. 13(월) ~ 2005. 1. 7(금)
- 주 4일 수업(월·화·목·금요일 수업일시), 16일강.
나. 계절학기 강좌: 스키(2박 3일) - 세부일정 추후 공지
3. 강좌개설 기준인원: 10명 이상(전공, 교직, 교양)
4. 수강자격 및 신청절차
가. 수강자격: 200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신청학점: 6학점 이내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선발 및 학사징계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시 반영됨.
다. 「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교과목명이 다른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재수강신청원(홈페이지-학사행정-양식실에서 출력가능)을 반드시 소속대학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목명이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처리됨.
6. 수강신청
가. 기간: 2004. 11. 2(화) ~ 11. 4(목), 3일간
나. 수강신청 일시 및 장소
(1) 일시: 11. 2(화) 오전 09:00 부터 11. 4(목) 24:00까지
(2) 장소: 교내 자유 학습실 및 외부 PC(수강신청 프로그램 설치 후)
다.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기간에 교내PC실이나 외부에서 접속을 통해 수강신청

- 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04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7쪽 참조.
※ 9학기이상 재학생은 소속대학 교학과에서만 수강신청 가능.
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수강신청 전에 2004학년도 1.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의 과목을 조회하여 수강신청.
(2) 학생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3) 수강신청 시 본인 연락처(TEL,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바람.
7. 수강료
가. 개설 교과목 1학점 당(단, P/F 교과목은 시간당) ₩75,000.
나.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지부담.
다. 계절학기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음.
8.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
가. 기간: 2004. 11. 9(화) ~ 11. 10(수), 2일간.
나. 유의사항
(1) 최초 수강신청 결과에 의하여 개설예정교과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1. 8(월)게시하시오나 반드시 폐강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및 정정 바람.
(2) 6학점 이내에서 추가수강신청이 가능함.
9. 수업일정
가. 기간: 2004. 11. 15(월) ~ 11. 17(수), 3일간
- 스키 부대비용은 11. 18(목) ~ 11. 19(금) 남부 예정
나. 방법
(1) 교지서 출력: 본교 홈페이지 재학생서비스 계절학기에서 출력
(2) 수업번호: 제일은행 전 지점
(수납모임: 제일은행 동국대 출장소 T.02-2260-8990)
다. 유의사항:
(1)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계절학기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음.
(3)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신청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므로 폐강 교과목 확정공고(11월 22일 예정)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어 폐강된 경우 학사지원실(2260-3043)로 문의 바람.
10.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발표: 2004. 12. 3(금) 예정

정찬용 박사 영어 학습법 특강
영어를 잘 하면 인생이 바뀐다

The Dongguk Post에서는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의 저자 정찬용 박사의 영어 학습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 특강내용
- 기존 영어 학습법의 문제점
-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의 차이
- 콘텐츠 중심의 학습법이란?
- 영어 학습은 공부라 아니라 훈련이다!

동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04년 11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
▷ 장소: 동국관 L401 강의실
▷ 제목: 영어를 잘 하면 인생이 바뀐다
▷ 초청강사: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저자 정찬용 박사
▷ 주최: 동국대학교 영자신문 The Dongguk Post
▷ 문의: 2260-3493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강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좋은 강의'에 관한 에세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온 강의 가운데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명강의를 강의주제, 내용, 방법,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해서 A4용지 1~2매 내외로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아울러 차후에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니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동국 상: 20만원(1명)
▷ 만해 상: 10만원(2명)
▷ 코끼리 상: 5만원(5명)

• 보내 주실 곳: cti@dongguk.edu
• 신청기한: 2004년 11월 07일까지
• 주최: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수학습개발센터
2260-3897/3898

달하나 천강에



최인숙 문과대 철학과 교수

몇주전 어느 오후 서너시경 상록원 식당 입구와 이과대 건물 사이에서 중앙도서관 앞을 두고 한참동안 마이크로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요즈음은 날씨가 매우 좋아 창문을 열어 놓고 있다나

히 마쳐야 할 일은 있는데 그 외침소리는 계속되었고 나는 자꾸 그 쪽으로 신경이 쓰였다.

2003학년도 이전에는 이보다 심한 현상들이 학교 곳곳에서 일상으로 일어났다. 구도서관 앞, 해화관과 동국관 사이, 학림관과 만해광장 사이 등에서 학생들은 마이크로, 그것도 모자라 어느 때는 앰프 시설을 작동시키고 배경음악까지 켜 채 외쳐댔다. 그것도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철학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양과목 수업은 대체로 사범대 건물에서 진행된다. 하루는 그 건물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몇 학생들이 현관 앞에 앰프시설을 설치하며 마이크테스트 하는 중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내가 강의실로 들어가 수업 하는 중에 마이크 소리가 나면 안된다며 호통 치고는 건물로 들어섰다.

그러나 수업을 하는 중에 밖에서 그 소

무지한 학생들

리가 들려왔고, 창문을 모두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계절은 창문을 닫을 날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의실 안은 문을 모두 닫아 너무 더웠다.(그 때는 에어컨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때였다) 그렇다고 수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났는데 그 때마다 수업을 중단한다면 내 최소한의 임무를 방기하는 일이 된다) 내 목소리는 쇠소리가 날 정도로 되고 목은 아프고 나는 분노했다.

저런, 이기적인 학생들! 강의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네들과 같은 학생들이고, 학생들의 좋은 수업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인데, 그것을 학생인 그들이 방해하다니. 도대체 수업 시간에 마이크로 외쳐대는 그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나는 수강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저런 학생들의 행위를 학생들 자신이 막아야 한다고. 그러나 그 당시 위와 같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학생들이 항의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사실은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이 직접 나

서야 했다. 아니, 나 자신도 매년 수강 학생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수업 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항의하고 그들을 꾸짖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는 중에 학생들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그것이 구 도서관 앞이건, 해화관과 동국관 사이이건, 사범대 앞이건, 혹은 본부 건물 앞이건, 학생들은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마이크로 부르짖었다.

나는 어제 오후 상록원과 이과대 건물 사이, 그리고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들이 마이크로 한참동안 외칠 때, 급히 마쳐야 할 일들이 밀려 있어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학생들을 혼내야 했다.

그들은 무지해서 자기네들이 남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정녕 자기네들의 구호를 부르짖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다른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가르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나는 그들을 가르쳐야 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나는 비겁했다.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발음(發音)

신석정

살아보니 地球는 몹시도 좁은 고장이더군요.

아무리 한 억만년쯤 태양을 따라 다녔기로서니 이렇게도 호효이 가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낡은 청춘을 숨가빠하는 지구에게 매달려 가면서 오늘은 가슴속으로 리듬이 없는 눈물을 흘려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보! 안심 하십시오. 오는 봄엔 나도 저 나무랑 풀과 더불어 지를대는 새같이 발음하겠습니다.

- 시집 '빙하(氷下)' 중에서

우리 시에 목가적 분위기를 아름답게 소개했던 신석정은 초기시에서 보여준 시세계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꾀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일구어낸 시인이다. 역사와 자연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그 책임 의식과 무한한 경의심을 보여주는 시편들은 감미로운 시어(詩語)들로 채색되어 있기에 장중하다.

'發音'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시는 현란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의 어지러움증을 참신하면서 위트가 넘치는 언어들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달픈 현실의 가혹함에 주눅들지 않고 곳곳에 내 목소리를 갖고 살아가겠다는 싱그러운 생명력을 발산한다. 그는 물질과 벽돌로 짜여진 문명을 막무가내로 거부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의 시는 나무와 풀과 어울리면서 새들의 지저귀음을 노래하겠다는 식물적 상상력을 통해 문명으로 말미암아 상처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내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초록이 지저 댕댕이 드는 요즘, 시인은 한 해를 즐기며 달려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왔는지 환기시켜 주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미소짓게 만드는 따뜻한 사람이 담겨 있다.

임종욱 국어국문학과 강사

메아리

술선수범의 미덕

▲"당신의 아드님도 이라크에 보내 시죠?" "....." "....." 영화 '하체 9.11'을 보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라크 침략에 찬성한 미 국회의원에겐 인터뷰한 장면이 나온다. 이라크 침략은 찬성하지만 막상 자신의 아들은 절대 보내기 싫다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 이로써 이라크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하



중민은 전쟁에 동원되는 반면 이른바 '사회고위층'은 이들을 사지로 보내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일반 고 유일한 박사

▲하지만 고위층의 이같은 공공의식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부와 권력은 넘쳐나지만 사회적 덕망과 명예는 그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고위층이 대다수인 것이다. 6·25 당시 피난민들의 회생은 무시한 채 한강다리를 폭파시켰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외환위기 때 서민들이 굶고기 운동에 동참하는 동안 다른 나라로 떠날 공리를 했다는 일부 고위층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 지배계층의 도덕적 수준이 어찌했는지 짐작케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학교 전체 정교수(11년 이직으로 사회고위직 인사에게 상 재직하고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의 연구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연구업적이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서인지 심지어 1년 동안 논문 1편도 쓰지 않는 교수도 상당수 늘었다는 것이다. 전체 교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정교수의 연구실적이 이처럼 부진하니 타대학보다 연구분야평가순위가 뒤쳐질 수밖에 없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연이어 저조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정교수들의 술선수범이 더욱 필요할 때다.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사설

다양한 후보의 출마를 기대하며

총학생회 선거가 후보자미등록으로 무산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대표를 선출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 전까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당장 내년 초부터 진행해야 하는 등록금 논의와 새터사업 등 학생회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단순히 투표율저조의 문제가 아니라 출마자조차 나타나지 않는 상황은 현 학생회의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특히 올해는 본관점점 등으로 총학생회와 학교의 관계가 단절됐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화됐고 이런 과정에서 총학생회에 실망해 등을 돌린 학생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와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맞물려 예비후보자들은 학생들로부터 지지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다음 선거를 기약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학교 총학생회의 구조적 폐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상황이 다른 여러 후보가 출마해 총학생회의 정권교체를 반복한 서울대와 고려대 등과 달리 우리학교는 현 총학생회 계파가 지난 10여년 동안 독점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던 것이다. 다른 계파들은 이미 몇 번 출마했으나 탈락의 고배를 여러번 마신 이후 이제는 패배주의에 젖어 계파의 벽을 넘어서려는 도전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총학생선거를 건강하게 치르려면 다양한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적 폐쇄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가 소속 단과대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풍토를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선위는 '6학기이상 학업과정을 수료해야하고 재학생 6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는 현 후보자등록자격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후보가 출마해 선의의 경쟁을 치르는 내년 선거를 기대해 본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흥기삼 편집인 김주간 부주간 구본철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최성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제22회 명찰 순례

萬海앞에

그대 도로하기 암흑강 갈아서 우리 가진 것 두려움밖에 없을 때 지칠 것 없다 앞장 서 달려가시고 그대 길기 동해바다 갈아서 모두들 추위와 배고픔에 가랑잎처럼 떠돌던 때 친근의 무게로 우리를 잡아 주시고 그대 늘기 백두산 갈아서 눈앞의 잇속에 갈광질광 헤매 때 우리 갈 먼 길을 높은 데서 가리켜 주시고

그대 넓기 개마의 고원 갈아서 부끄러워 몸 숨기는 빛나간 무리 잘못된 생각이 크게 보듬어 주시고 그대 빛나기 별과 갈아서 세상 뜨신 지 반 백년이 넘었는데도 멀리서 우리 알길 환하게 밝혀주시고 멀리서 우리 알길 환하게 밝혀주시고

신경림(시인)

멀리서 우리 알길 밝혀주신 萬海의 숨결이 머물던 곳, '백담사' 로의 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 순례일자 : 2004. 11. 12(금) ~ 11. 13(토) <1박2일>
2. 순례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백담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4. 참가비 : 오천원(W5,000)
5. 접수기간 : 2004. 10. 27(수) ~ 11. 9(화)
6. 접수처 : 본관 학생복지실(☎2260-3048)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4. 11. 12(금) 오후4시, 정각 앞

학 생 처

2005학년도 전기 신입생모집(야간) 경영학석사(MBA) 및 최고경영자과정

◆ 석사학위과정(MBA) ◆

- 모집학과 및 전공 - 경영학과 : 조직·인사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국제경영 전공 - 회계학과 : 회계학, 세무회계 전공 - 인문학부 : 인터넷무역 전공
- 경영정보학과 : 경영정보, 국립관리(총장) 전공
- 부동산학과 : 부동산 전공
- 호텔관광경영학과 : 호텔관광경영, 이벤트경영 전공

교육특성 - 사례중심 수업 - 석사학위 논문 또는 경영사례연구보고서 중 선택 가능

원서교부 및 접수 - 2004.11.18(목) ~ 11.25(목), 경영대학원 교학부(학술관 1층)

- 제출서류 - 입학원서(신청서), 졸업이수증서(다문으로 반영됨 50매 1부) - 주민등록초본(영양사 기재) 1통(군인필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호정자에 한함)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대학성적증명서 각 1부
- 재직증명서 1통(영양사)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연 점 2004.11.27(토) 13:00, 본교 학술관 1층(서울)

특 전 공무원, 관·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직업군인 등에 정칙해택

◆ 최고경영자 과정 ◆

- 과장특성 - 국내외 저명인사초청 '경영현장특강' 실시 - 경영학석사과정 개설과목 자유수강
- 부부동반 '경영자의 철학과 문화특강' 실시 - 동국대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1년 2년 과정)
- 전략경영론, 전략경영사례연구, 고급경영전략세미나 강좌 - 경영대학원 총학생회 및 동국 CEO포럼 활동 참여
- 금융채테크전략, 부동산재테크전략 강좌 - 동국대 총동창회 및 경영대학원 동창회 회원자격부여

응시자격 - 학력 제한없음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방법, 특전 - 석사과정과 동일

http://graduate.dongguk.edu/ba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TEL : (02)2260-3106-7 FAX : (02)2267-8021

이벤트·컨벤션 전문가 자격증 제7기 단기교육과정 모집



국제스페셜이벤트협회(ICES) 공인 미국조지워싱턴대학 공동프로그램

- 과정특성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이 개발하고 세계13개 유명대학이 공동 개설하는 프로그램
- 미국 국제스페셜이벤트협회(ICES)에서 인준한 조지워싱턴대학 Event Management 자격증 수여
- 미국 GWU 출신교수 및 국내 최고의 현장전문가 중심의 강사진 구성
- 국내 13개 이벤트·컨벤션 선도가업과의 인턴재선협약 체결

교육내용 및 강사진 - 강사진의 이력 및 교육과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교육기간 - 1학기과정 - 수업일시 : 수, 목, 금요일, 오후 6:30~9:40

모집요강 - 모집인원 : 00명 - 모집방법 : ○○명 - 응시자격 : 대학생 재학생 이상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연 점 : 2004.12.11(토) 14:00, 본교 학술관 1층

이벤트 홈페이지 - http://www.koevent.or.kr - http://www.gwu.edu/emp

